

달동네 소시민들의 가슴 시린 삶과 사랑

창작 뮤지컬 '빨래' 광주 공연

2005년 초연후 3000회 넘는 공연
관객 57만명 동원... 中·日 무대 진출
10월 1·2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다시 보고 싶다.”

커피를 끓이고 의자에서 일어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었다. 달동네 서민들의 이야기라는, 어찌보면 다소 무거운 주제에 화려한 무대 장치도, 이를 있는 배우도 없는 소박한 뮤지컬. 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어떤 대형 뮤지컬도 주지 못하는 감동과 위로가 있었다. 인티미션을 포함해 2시간 40분 가까운 공연 시간 내내 관객들을 울고 웃기며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지난 6월 서울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관람한 창작 뮤지컬 ‘빨래’는 왜 이 작품이 3000회(관객 57만명) 넘게 공연되며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인지 정확히 보여줬다.

서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나영과 몽골 이주 노동자 솔롱고 등 우리 주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진솔하게 그려낸 ‘빨래’는 탄탄한 스토리와 아름다운 음악, 유쾌한 웃음과 감동이 함께한다.

무엇보다 이주 노동자 문제, 해고 문제, 장애인 문제 등 다소 무거운 소재들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진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유머러스한 극 구성으로 관객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작품의 배경은 서울 달동네다. 서울 생활 5년차 강원도 아가씨 나영이 전라도 출신 육점이 할매네 집으로 이사 오면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곳에 살고 있는 이들은 모두 ‘땀’을 찾아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로 모여들었다.

무엇보다 생생히 살아 있는 인물들이 흥미롭다. 동대문에서 숙웃 장사하는 경상도 출신 희정엄마, 솔롱고의 친구인 필리핀 출신 노동자 마이클, 아비한 서점

사장, 사장 눈치 보는 직장인, 외상값 손님에 속 썩는 슈퍼 아저씨, 순대 속처럼 미어터지는 마을버스 운전 사까지.

각종 뮤지컬 어워드에서 극본상과 작사상을 받은 작품답게 뮤지컬 넘버의 가사가 마음을 움직인다.

해고 위기에 놓인 나영을 위로하며 희정엄마와 주인공할매가 함께 부르는 노래는 위로가 된다. ‘빨래가 바람에 제 몸을 맡기는 것처럼 인생도 바람에 맡기는 거야/ 시간이 흘러 흘러 빨래가 마르는 것처럼/ 슬픈 눈물도 마를 거야’(슬픈 땀 빨래를 해요)

특히 주인공할매가 장애아로 태어나 사십 넘게 기저귀 신세를 지어야 하는 딸을 생각하며 ‘어찌겠냐. 이것이 인생인 것/ 얼룩같은 슬픔일랑 빨아서 헹구버리고 / 먼지 같은 걱정일랑 털어서 날려버리자/ 내가 살아 있게 빨래를 하는 것네. 요것이 살아있다는 증거 일게 암씨람도 안허다’라고 노래할 땐 객석에서 울음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또 솔롱고가 나영에 대한 마음을 노래하는 ‘잠 예뻐요’, 출연진들이 모두 함께 부르는 ‘서울살이 몇했가요’ 등도 인상적인 곡이다.

주인공 나영과 솔롱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의 배우들은 1인 다역을 맡아 다채로운 연기를 보여주며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빨래’는 2003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작품에서 출발했다. 이후 2005년 국립극장 공연을 통해 관객을 만난 ‘빨래’는 단 2주만의 공연으로 제11회 한국뮤지컬대상 작사·극본상을 수상했다. 이후 관객들의 입소문에 힘입어 지금까지 3000회 넘게 공연, 57만명의 관

객을 동원했으며 일본과 중국에도 진출했다. 또 중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대본이 실리는 등 작품성도 인정받았다.

2016년 버전 ‘빨래’에는 뮤지컬 스타 홍광호가 출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작품을 보면서 뮤지컬 본고장 영국 웨스트엔드에 진출, ‘미스 사이공’에 출연했던 뮤지컬 스타 홍광호가 왜 올해 다시 ‘빨래’로 돌아왔는지 어렵게 알 수 있었다.

‘빨래’는 10월 1일(오후3시·7시), 2일(오후2시·6시)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광주 공연을 갖는다. 이번 광주 투어에서는 대극장 버전 무대 세트 등을 활용한다.

1층 전석 5만원, 2층 전석 3만원. 문의 062-220-05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빨래’ 줄거리

서점에서 다니는 스물일곱 당찬 강원도 아가씨 나영이 달동네로 이사를 온다. 빨래를 널러 올라간 옥상에서 이웃집 몽골 청년 솔롱고를 만나 첫 인사를 나누고, 동네에서 종종 마주치던 두 사람은 바람에 날려간 빨래를 계기로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 그러던 어느날 나영의 동료가 서점 사장에게 부당해고를 당하고, 이를 참지 못한 나영은 사장과 맞서 싸우다 결국 자신도 해고 위기에 처한다.

달동네엔 억척스러운 주인 육점이 주인공 할매, 동대문에서 숙웃 장사하는 희정엄마 등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아간다.



이병권 작 '감잎과 찻잔'



윤석신 작 '계영배'

흙과 불과 열정이 빚어낸 미감

남포미술관 8월 28일까지 이병권·윤석신 도예전

남포미술관이 8월28일까지 특별기획 전시 ‘陶藝-흙과 불이 빚어낸 미감’을 연다.

이번 전시는 전통도자 명맥과 예술혼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토촌 윤석신과 덕천 이병권 작가가 참여해 흙과 불, 열정이 어우러진 도자 조형예술을 선보이는 자리다.

약 40여 년간 도자기를 빚어 온 윤석신 작가는 전통을 기반으로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분청과 술잔 ‘계영배’, 작가 특유의 아이디어와 위트가 넘치는 생활 도자기 등을 선보인다. ‘계영배’는 술이

일정부분 차면 새어나가도록 만든 잔으로, 거북이, 해대 등을 새겨넣은 조형미가 돋보인다.

명지대 객원교수로 재임 중인 이병권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전통 망명기 장작가마에서 구워낸 다채로운 기법의 찻사발과 자연스럽고 담백한 매력이 이상적인 달 향아리를 펼쳐놓는다. 차주전자 뚜껑을 감입모양으로 만들어 편리함과 예술미를 동시에 지닌 ‘감잎과 찻잔’을 비롯해 ‘가을’, ‘바람’ 등 자연이 만들어 낸 독특한 문양을 보여준다. 문의 061-832-0003. /김용희기자 kimyh@

그 감동 다시 한번



광주극장 리마스터링 영화 ‘벤히’ 9일·10일 상영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한 명작 ‘벤히’가 다시 영화팬들을 만난다.

광주극장은 오는 9일(오후 6시50분)과 10일(오후 2시 20분) ‘벤히’를 두차례 특별 상영한다.

1959년 거장 윌리엄 와일러가 메가폰을 잡은 ‘벤히’는 이듬해 제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등 무려 11개 부문 수상으로 역대 최다 수상을 기록한 명작이다.

서기 26년 로마 제국 시대, 예루살렘의 유대 귀족 유다 벤히가 옛 친구이자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신인 총독 사령관 메살라의 계략으로 모든 것

을 잃고 노예 신세로 전락한 뒤, 다시 무너진 지위와 가족을 되찾기 위해 메살라와 목숨을 건 대결을 감행하는 과정을 장대하게 그려냈다.

주인공 벤히 역의 찰튼 헤스톤 등 명배우들의 연기와 스펙터클한 장면이 인상적이다.

디지털 리마스터링 재개봉작으로 우아하고 품격 있는 영상미와 CG나 특수효과 없는 100% 수작업이라는 경이로운 스케일을 스크린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티켓 가격 성인 1만원, 청소년·후원회원 8000원.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400여점 전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제5회 2016 청소년축제
The 5th Youth Festival

No Bullying, Yes Bling!

2016. 7. 23 (토) 10:00~19: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 (옛 도청 분수대광장)

▶대학선택을 위한 주요 대학 입시홍보관
▶진로 탐색 및 적성 상담
▶학교폭력 상담
▶신나는 체험활동관
▶대학생 인기 댄스, 밴드 공연
▶경품 이벤트

경연대회 모집 안내 교육부 장관상 및 시·도 교육감상 수여

모집분야 | 공연예술분야(댄스, 음악, 풍물 등)
3:3 길거리 농구대회

대상 |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참가비 무료)

모집기간 | 7월 18일까지

문의전화 | 062.220.0555 / 010.7174.1257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youngkwangju>

주최 | 광주일보사 · 아시아문화
후원 | 교육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